

해외동향

인도네시아, 전력 부족사태 심각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보고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 시멘트 생산업체인 PT Semen Cibinong Tbk.와 신문용지 제조업체인 PT. Aspex Kumbong는 최근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인 PT PLN으로부터 전력공급 중단으로 지난 4월중 4일 동안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등 인도네시아 전역이 심각한 전력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르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섬유, 의류,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산업 밀집지역으로 당시 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물론 이 지역의 호텔, 쇼핑센터와 기타 산업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총 200억루피아(약215만달러) 상당의 산업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의 전력 공급 부족은 3년전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수의 독립 전력생산 업체의 (Independent Power Producer - IPP) 전력생산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PT. PLN 측에서도 최근 인도네시아 전역의 전력 부족사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시인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최대의 제조업체 밀집지역인 남부 자바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Paition I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 부족으로 동 지역의 지역을 시간대로 나누어 제한 송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aition I 이외에 서부 자바지역 최대의 전력 생산업체인 PLTU 역시 최근 동사의 전력생산원인 석탄 공급부족으로 발전량을 3,400MW에서 2,400MW로 감소시키며 있다.

이러한 석탄 공급부족의 원인은 인도네시아 국영 석탄공사 (PT. Tambang Batubara Bukit Asam)의 석탄 공급을 감소시킨데 기인하고 있는데 석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이후 루피아 환율의 평가절하 지속으로 PT PLN 측에 루피아 베이스로 석탄을 판매하는 것보다 달러 베이스로 대금을 지급받는 수출이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석탄 생산물량을 수출로 돌리고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소재 발전소는 주로 내외국인에 의한 장기투자 방식의 일종인 BOT, BOO, BRT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내 외국인 투자자가 자기비용으로 인도네시아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동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인도네시아 정부 보증으로 국영 전력공사인 PT PLN측과 매입 계약을 체결, 동 전력을 매입해 국내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해 외 동 향

어 이 발전소 건설에 따른 안정적인 원금회수는 물론 이 프로젝트 공사 추진에 따른 산업 설비류의 수출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의 발전소 시설에 대한 주자는 주로 주요 선진국, 특히 일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지난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환 부족과 국가 신용등급의 하향조정, 인도네시아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정부보증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대금회수가 어려움과 동시에 최근 일본의 경기 부진으로 일본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주요 채권국 회의인 Paris Club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채 상환 기한 연장에 성공함으로써 당분간 인도네시아 정부

가 외환부족의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발전소 등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다수의 외국계 기업이 인도네시아 사회간접 시설 프로젝트에 참여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으로는 비록 정부 발주 프로젝트이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생산전력 매입을 보증한다고는 하지만 1997년과 같은 경제위기 도래시에는 자금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프로젝트 계약 체결시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증으로 주요 해외 보험사에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자금회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소형 발전기시장 동향, 전력부족률 40% 수입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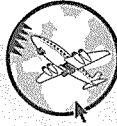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375kW이하 발전기의 연간 수입규모는 2500만~3000만달러 수준이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 싱가포르, 독일 등지이며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규모는 98년도에는 200만달러 정도였으나 한국 및 인도네시아가 IMF를 동시에 겪으면서 교역관계가 중단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제품별 수요자 반응을 보면 독일사 'Deutz' 브랜드는 정품 엔진과 turbocharger 부품이 장착된 최고품질이며, 완벽한 애프터서비스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미국산 'Cummins' 브랜드는 품질수준이 독일산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소음과 진동이 적고, 작동이 쉽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일본

산 'Yanmar' 브랜드는 품질수준이 높고, 강하며 작동이 쉽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이동형 디젤 발전기의 유통채널은 외국의 이동형 디젤 발전기 제조업체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공단입주업체에 공급하고있는 구조이다.

현재 외국계 기업에서 인도네시아의 발전소 건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의 인구와 산업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전력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해 인도네시아 전체인구의 약40% 정도가 아직도 생활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동향

발전기(HS:8502-13-000)수입실적 (품목명 : 375kW Generating Set)

(단위 : 달러)

| 국 가 | 1998 | 1999 | 2000 | 2001(1~5) |
|------|------------|------------|------------|------------|
| 미 국 | 15,837,727 | 2,989,223 | 10,257,159 | 10,436,975 |
| 싱가포르 | 4,274,322 | 3,224,721 | 4,899,948 | 1,858,361 |
| 독 일 | 40,019,484 | 220,014 | 4,369,711 | 1,456,923 |
| 영 국 | 6,156,562 | 12,240,726 | 2,063,885 | 1,499,531 |
| 말 聯 | 2,638 | 278,397 | 889,391 | 2,639 |
| 일 본 | 3,223,573 | 2,178,955 | 825,441 | 1,284,505 |
| 중 국 | 551,644 | 21,141 | 231,739 | 781,800 |
| 호 주 | 773,442 | 630,114 | 154,762 | 38,201 |
| 한 국 | 1,875,128 | 0 | 0 | 32,130 |
| 기 타 | 16,175,058 | 4,797,956 | 39,103 | 162,308 |
| 총 계 | 88,889,573 | 26,581,247 | 23,731,139 | 13,553,103 |

동형 디젤발전기를 인도네시아 발전기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세일즈맨의 세일즈 결과에 대해 성과급을 도입해 이들 세일즈맨들이 셀러리 이외에 판매량에 따라 일정량의 코미션을 지급하고

이동형 디젤발전기에 대한 수요는 인도네시아의 IMF가 시작된 1998년 이후 구매자금의 부족으로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경기여건이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구매력이 어느 정도는 회복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는 1997년 이후 계속적인 전력부족난을 겪고 있으며, 전체 인구가 2억4천만 명을 육박하고 있으나, 이중 60% 정도만이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요전망이 매우 밝다고 하겠다.

물론, 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게는 이동형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신규수요 및 대체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쟁업체들의 판매 활동을 보면, 미국의 Caterpillar사의 인도네시아 공식 딜러인 PT. Trakindo Utama사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40개의 지점을 갖추고 10kW용에서 6,500kW용까지의 이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오더를 결정하는 고객회사의 담당자에게 SMC(Strategy Marketing Commission = Some Certain Money)를 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고객회사의 구매결정권자에게 제품가격의 10%를 코미션으로 부여하는 대신에 가격을 그만큼 인상시켜 판매함으로써 판매회사는 손해가 없으며, 구매회사가 이를 부담하는 형식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부패가 만연해 이러한 현상이 상관행에서도 통용되며, 고객 회사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공급업체가 현지 에이전트를 선정하지 않고 수입상에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위와 같은 여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바이어들은 항상 인도네시아에 부품을 비축한 후



해 외 통 향

애프터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트 선정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경쟁사별 시장점유율 및 연간 판매 수량

△ 미국산 'ummins' 브랜드

- 품질수준 : Very Good
- 수입가격 : 84,1460달러 per unit
- 시장점유율 : 20%
- 연간판매량 : 4,740,000달러

△ 독일산 'Deutz' 브랜드

- 품질수준 : Best
- 수입가격 : 89,100달러 per unit
- 시장점유율 : 11%
- 연간판매량 : 2,607,000달러

△ 일본산 'Yanmar' 브랜드

- 품질수준 : Good
- 수입가격 : 79,300달러 per unit
- 시장점유율 : 2%
- 연간판매량 : 474,000달러

인도네시아, 가변모터 연 2백만弗 수입

인도네시아의 가변모터의 연 총수입량은 100만~200만 달러 수준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일본이며, 다음은 독일, 대만, 중국이다.

특히 2000년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했는데, 현지투자한 일본계 회사가 일본내 모기업에서 대량 구입한 수치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매년 2만달러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연간 100만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현지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의 수출물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변모터(HS:8505-20-000) 수입 실적

(단위 :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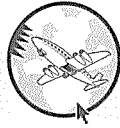
| 국 가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1~6) |
|------|-----------|-----------|-----------|------------|
| 일 본 | 3,383,852 | 343,027 | 5,207,723 | 991,625 |
| 독 일 | 205,924 | 163,027 | 264,896 | 82,792 |
| 대 만 | 16,453 | 28,595 | 130,228 | 79,753 |
| 미 국 | 44,000 | 114,871 | 80,279 | 16,470 |
| 중 국 | 57,287 | 24,134 | 48,350 | 59,045 |
| 싱가포르 | 17,183 | 20,011 | 23,339 | 13,761 |
| 호 주 | 15,611 | 65,050 | 22,774 | 12,174 |
| 네덜란드 | 3,537 | 1,714 | 21,869 | 26 |
| 한 국 | 11,746 | 18,065 | 18,723 | 4,424 |
| 기 타 | 358,965 | 422,391 | 79,620 | 37,902 |
| 총 계 | 1,069,058 | 1,200,885 | 5,894,801 | 1,297,972 |

수출실적

(단위 : 달러)

| 연 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1~6) |
|-----|---------|---------|-----------|------------|
| 총 계 | 107,472 | 620,524 | 1,274,663 | 546,192 |

<자료=인도네시아 중앙통계국>



해 외 동 향

현지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내수생산 가변모터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고 대기업, 특히 외국투자기업들은 수입품 사용비중이 높는데, 수입품 중에서 모국에서 들여온 제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일본계 투자기업인 PT. National Gobel은 가변모터를 일본 모기업인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IMF 이후에는 수입상들의 수입 형태가 많이 바뀌어 대량으로 수입하지 않고, 수입상들이 바이어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때그때 수입을 하고 있고, 스톡물량은 가지고 있지않다.

러시아, 소형발전기 수입 증가세

러시아 소형 발전기 시장은 연간 약5%씩 성장하고 있으며, 수입제품이 전체 시장의 5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재원 부족으로 생산설비 현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소형 발전기 사용자들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관계로 러시아내 자체 생산은 아직 발달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러시아내 소형발전기 생산업체는 많지 않으며, 국내 생산량은 1999년 440만달러에서 2000년 360만달러로 약19%가 감소했다.

러시아 주요 생산업체로 모스크바에 위치한 'AMP-Komplekt'사가 국내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Honda, Yamaha, Lombardini등 해외 유명 제품을 들여와 조립,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Vepr'라는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 동사 제품은 품질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외에 Kursk에 위치한 'Electroagregat'사는 전체 시장의 1~2%를 점유하고 있으나 품질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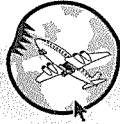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

세이다. 러시아 공식 통계에 소형 발전기통계가 별도로 있지 않지만 수입규모는 무역관 자체 추산으로 1999년 650만달러에서 2000년 750만달러로 14%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 독일, 프랑스이며 영국, 이태리, 오스트리아도 러시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소형발전기의 주 수요처는 건설회사와 개인사용자로 개인 사용자들은 러시아인들이 봄, 여름을 주로 보내는 dacha(러시아식 별장)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소형발전기 판매는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러시아내 건축경기가 활황인 관계로 건설회사 사용 수요도 매우 좋은 편이다.

러시아내 주요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는 일제 Yamaha가 전체 시장의 15%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외에 Daishin(일본), Endress(독일), Generac(영국), Yanmar(일본), SDMO(프랑스), Lombardini(이탈리아), Fitsinger(오스트리아), L'Europia(이탈리아), Sparky(독일), Wilson(영국) 등이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수입브랜드



해 외 동 향

드이다.

소비자들은 구매시 가격과 품질의 적절한 조화를 우선시 한다. 따라서 자국의 AKM Komplekt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이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높다. 그러나 최근 구매동향을 보면 고품질 제품 소비 추세가 발전하고 있어 제품 브랜드와 제조국의 명

성이 구매의사 결정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향이 있다.

러시아 시장에 한국제품은 거의 진출하지 못했으며, 바이어들은 A/S를 구매시 최우선에 두고 있어, 이를 염두에 둔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남아공, 전기모터 시장진출 가능성 타진

■ [브라질] 전기모터

남아공에서 유통되는 전기모터의 경우 남아공 로컬업체가 직접 제작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는 두 가지 방식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데 현지에서 직접 제작되는 모터의 경우 부분품을 수입, 단순 조립 생산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현지시장에서의 시장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아공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전기모터 관련 회사는 브라질의 Zest Electric Motor사로 WEG라는 브랜드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남아공 전기모터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Zest사는 전국에 4개의 지점을 가지고 유통 및 애프터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업체명 : Zest Electric Motors (Pty) Ltd.
- 주 소 : Private Bag X 10011, Sandton
2146, South Africa
- 전 화 : 27-11-723-6000
- 팩 스 : 27-11-723-6001
- 종업원수 : 72명

• 설립연도 : 1980년

2002년 2월까지 관세번호 8501 전기모터류 수입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현지화폐 기준으로 50.7% 증가했는데 전년 대남아공 3위의 수출국이었던 브라질이 2월까지 가장 많은 금액의 전기모터류를 수출하고 있다.

이는 남아공이 속한 남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와 브라질이 속한 메르코 수르간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고 브라질 화폐의 가치절하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2001년 대남아공 수출액은 313만3천란드(약 36만4000달러)로 대남아공 전기모터류 전체수출의 약 1.1%에 머물고 있어 업체의 시장 개척 노력에 따라 남아공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전기모터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남아공 표준규격청(SABS)의 규격을 획득해야만 가능하며 수입 관세율은 없다.



해 외 동 향

■ Bircraft C.C.

- 업체명 : Bircraft C.C
- 담당자 : Mr. Birket (managing director)
- 이메일 : pb@bircraft.co.za
- 주 소 : P.O. Box 30717 Kyalami 1684

Republic of South Africa

- 전 화 : 27-11-468-1881
- 팩 스 : 27-11-468-1698
- 웹사이트 : www.bircraft.co.za

■ Leroy Somer

- 업체명 : Leoroy Somer
- 담당자 : Mr. Robertson (managing director)
- 이메일 : ssawyer@mweb.co.za
- 주 소 : P.O. Box 751103 Garden view
2047 Republic of South Africa
- 전 화 : 27-11-455-6242
- 팩 스 : 27-11-455-6021

■ Fender Power Transmission (Pty) Ltd

- 업체명 : Fender Power Transmission (Pty) Ltd
- 담당자 : Mr. Gertz (managing director)
- 이메일 : contact@flender.co.za
- 주 소 : P.O. Box 131 Isando 1600

Republic of South Africa

- 전 화 : 27-11-392-2850
- 팩 스 : 27-11-392-2434
- 웹사이트 : www.flender.co.za

■ Cema Electrical Motors (Tty) Ltd

- 업체명 : Cema Electrical Motors (Tty) Ltd
- 담당자 : Mr. Bussey (sales manager)
- 이메일 : sovex@iafrica.com
- 주 소 : P.O. Box 14532 Wadeville 1422

Republic of South Africa

- 전 화 : 27-11-902-3692
- 팩 스 : 27-11-902-2248

■ Electical Motors · Components Ltd

- 업체명 : Electical Motors · Componentis Ltd
- 담당자 : Mr. Maier
- 이메일 : emac@global.co.za
- 주 소 : P.O. Box 15300 Hurlyvale 1609

Republic of South Africa

- 전 화 : 27-11-974-8487
- 팩 스 : 27-11-974-9704

■ Nustart

- 업체명 : Nustart
- 담당자 : Mr. Riva (sales manager)
- 이메일 : nustart@cybertrade.co.za
- 주 소 : P.O. Box 10190 Eden glen 1613

Republic of South Africa

- 전 화 : 27-11-452-1801
- 팩 스 : 27-11-452-1810